

## 연등축제 역동성 열정 '찬사'

### 봉축위원회 '외국인 방문객 백서' 발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국제적 인기가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4일 <연등회 연등축제-외국인 방문객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외국인 방문객 조사 연구 및 국제홍보 과정 결과에 관한 자료를 재구성한 책이다. 연등축제를 찾는 외국인 분서 표본 수는 2010년 235명, 2008년 234명, 2006년 78명이며 외국인 교환학생 등 9명이 모니터링원으로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들은 △시각적 즐거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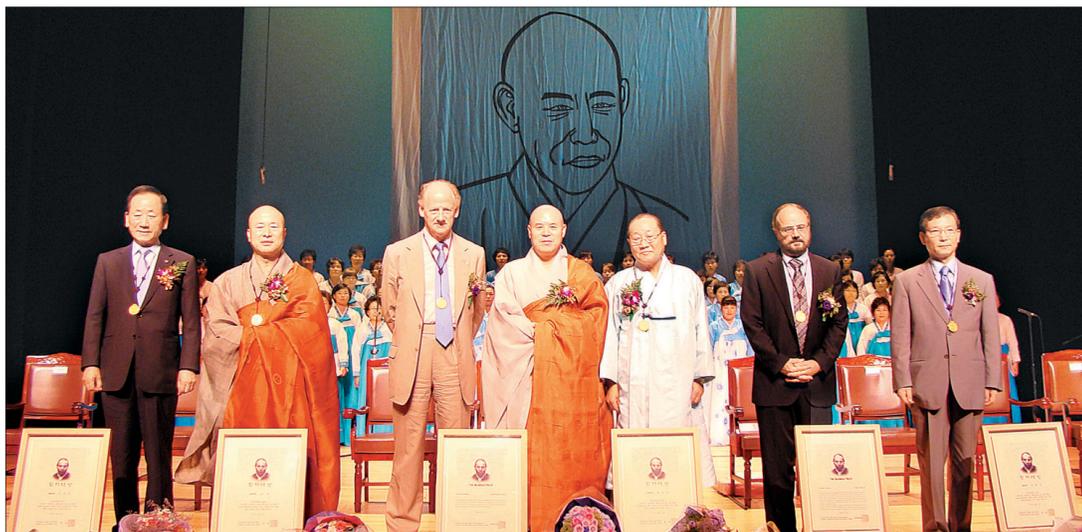
제 △매우 국제적인 축제를 연등축제의 특징으로 꼽았다. 이들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디자인의 연등, 등 만들기 같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으로 스스로 만든 결과물의 무상 획득,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기획, 연등행렬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진행되는 등 국제적인 축제라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외국인들은 무엇보다 연등축제의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북적이는 인파 속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전혀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욕심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불교축제가기 때문에 기운의 형성이 가

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봉축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의 범칙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외국인 재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스타 많은 편의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강화 △사찰음식 체험 확대 △홍보마케팅의 강화 등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봉축위원회는 "백서를 토대로 축제참가 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축제의 매력을 더욱 살려나가고, 제안사항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i@bulgyo.com



만해대상 수상자들이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 자리에 섰다. 왼쪽부터 이동건, 성운스님, 존 랠스톤 소울, 자승스님, 정진규, 존 던컨, 김학성 씨.

## 연꽃같은 삶, 만해스님을 기리다

만해 한운(1879~1944) 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2회 만해축전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인제 일원에서 열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주최로 열린 만해축전은 개막 첫날인 지난 11일 만해시인학교 입학식을 시작으로 단시조 한글서예전, 유심작품상 시상식, 학술세미나, 전국고교생백일장, 님의침묵 서예대전, 만해대상 시상식, 7080음악회, 축전대동제 등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들로 펼쳐졌다.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축전 입학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은 지난 12일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제하늘래센터를 가득 메운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만해대상 수상자를 축하하며 만해스님의 정신을 오롯이 잇겠다고 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만해대상 평화부문에 이동건 전 국제로터리클럽 회장이, 실천부문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 문학부문에 존 랠스톤 소울 국제 펜클럽 회장과 정진규 <현대시학> 주간, 학술부문에

존 던컨 미국UCLA 동아시아학과 한국학연구소장과 김학성 성경관대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자승스님은 법어에서 "우리가 해마다 백담사 일원에서 만해축전을 개최하는 것은 연꽃같은 마음을 배우기 위함"이라며 "만해스님과 만해대상 수상자들이 그랬듯이 진흙밭에도 연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서 찾아 온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열린 글짓기 실력을 겨룬 결과, 이경화(진주여고 2년)양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또한 12월 시상식을 가진 님의침묵 서예대전 대상은 류연옥 씨가 '새벽경치'라는 작품으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앞서 11일 열린 제8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권기호 시인과 김교한 시조시인, 김초혜 시인, 조동화 시조시

인 등이 특별상과 시, 시조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특히 이번 만해축전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승화됐다.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던 기존의 축전과 달리 인제하늘래센터 등 인제읍내 곳곳에서 행사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7080음악회 등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잇따라 열려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또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만해축

전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려 전국적인 학술대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만해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22개 단체가 주관하며 108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게 됐다. 학술세미나 주제도 다변화됐다. 소설과 시, 수필 등 문학 일반과 시조관련, 불교, 한일문제, 남북문제, 종교 일반, 하이데거 철학 등 다양한 영역의 학술논문이 선보이며 종합학술대회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만해축전은 공식 대회장인 14일 이후에도 오는 9월10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하게 된다.

한편 이번 만해축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 제3교구부사 신희승, 안주 오현스님, 주지 우송스님, 불교신문 사장 설희스님,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장 도후스님 등 불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주호영 특임장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인제=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연등축제 외국인 참여자 분석해보니... '종교 초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펴낸 <연등회 연등축제-외국인 방문객 백서>에 따르면 올해(2010년) 연등축제 당일 총 방문객 수는 20만 명이다. 봉축위원회 공식 집계 결과다. 2006년 16만명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외국인 방문객은 2만명, 2006년 1만명의 2배다.

전체의 10%에 이르는 외국인 참여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출신이 58.3%로 절반이 넘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다수였으며 주

아메리카 지역 58.3%  
 연령층 20대가 66%  
 개신교 32.3%...最多

로 영어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유럽(15.7%), 아시아(14.5%), 아프리카(8.1%), 오세아니아(3.1%)가 뒤를 이었다. 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연령대는 20대가 66%로 압도적이다. 이어 30대 17.4%, 40대 7.7%, 50대 4.3%, 60대 이상 4.3%, 10대 0.4%의 분포를 보였다. 연등축제가 외국인 젊은

이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종교는 개신교 신자가 32.3%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교가 30.6%, 가톨릭이 9.6%였으며 불교 신자는 6.6%에 불과했다. 개신교가 우세한 출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지표로 보인다. 아울러 연등축제가 이웃종교인들의 거부감을 살 만한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등축제를 인지하게 되는 계기는 지인의 추천(39.6%)이 가장 많았고 30대 이상 4.3%, 10대 0.4%의 분포를 보였다.

장영섭 기자 fuei@bulgyo.com

###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

#### 동국대 국제학술대회 1000명 몰려

동서양의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조계종의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의 의미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학교는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12일과 13일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선 간화선의 사상과 수행적 특성, 배경과 전개양상을 살피는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 15편이 발표됐다. 특히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스님, 전국선원장수회 전 대표 해국스님, 안국선원장수 불스님 등 한국의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사들의 활구(活句) 법문도 들을 수 있었다. 세미나 장소였던 중강당에는 10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몰려 간화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실감케 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은 격려사에서 "동아시아 간화선의 실상을 비교 조망하고 한국 간화선의 현주소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학술대회"라며 "한국 간화선의 진면목을 여실히 발휘해 그야말로 한국 간화선이 세계를 비출 수 있는 범위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사장 정련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성관스님, 오영교 총장, 로버트 버스웰 불교학술원장 등 동국대 관계자와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총무실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장영섭 기자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 학술세미나 2면

사명대사 열반400주년 특별기획 '아! 사명' 13면

# 제2회 전국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일 시: 2010년 9월 11일(토)  
 중·고등부: 오전 11시 ~ 12시 / 초등부: 오후 2시 ~ 4시  
 장 소: 중·고등부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평택, 남양주  
 초등부 결선 - 동국대학교(서울) 체육관  
 대 상: 전국 초, 중,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접수기간: 2010년 7월 12일 ~ 8월 31일  
 전 형 료: 무료  
 시상식: 2010년 10월 23일(토) 예정

#### 시험 유형

고등부 - 객관식 및 주관식 45문항  
 중등부 - 객관식 및 주관식 40문항  
 초등부 - 퀴즈(골든벨 형태)  
 초등부 결선대회 예상문제(결선대회 70% 반영)  
 8월 20일 이후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및 (사)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예정.

#### 시상내역

##### 개인부문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명(초, 중, 고 각1명)  
 장학금 초등 100만원, 중등 200만원, 고등 300만원  
 최우수상: 동국대 총장상 6명(초, 중, 고 각2명)  
 장학금 초등 50만원, 중등 80만원, 고등 100만원  
 우수상: 동국대 정각원장상 9명(초, 중, 고 각3명)  
 장학금 초등 3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80만원  
 장려상: 동국대 불교대학장상 30명(초, 중, 고 각10명)  
 장학금 초등 20만원, 중등 30만원, 고등 50만원  
 입 상: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상(참가자 상위 10%)  
 초등, 중등, 고등 기념품 증정

##### 단체부문: 참가자 중 개인상 최대 배출 단체 등에 수여

대 상: 조계종 총무원장상 1개 단체 각100만원  
 최우수상: 동국대 이사장상, 조계종 포교원장상 2개 단체 각80만원  
 우수상: (사)동원 이사장,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회장,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6개 단체 각50만원

##### 특별부문: 참가자 중 자원봉사, 문화재지킴이, 환경보호 등 불교신행 활동의 모범이 있어 추천된 자 (추천양식에 사할 주지사님, 학교장 추천 요망)

특별상: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상 5명 각100만원

※ 대입 입학 전형 반영  
 동국대학교, 금강대학교, 위덕대학교 등 입학전형 시 반영 자료로 활용(2011학년도 입학전형부서 적용)

#### 출제범위

○ 중·고등부 - 경시대회의 출제범위는 조계종출판사에서 펴낸 <청소년불교입문>과 <부처님의 생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내용에서 출제함.  
 ○ 초등부 - <에둘라, 절에 가자>(조계종출판사)와 <싹타라타의 꿈, 세상을 바꾸다>(불교출판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내용에서 출제함.

#### 접수처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2-2번지 은정빌딩 601호  
 대표전화: 02-515-9351,  
 이메일: bulgyo2010@naver.com  
 인터넷접수(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  
 (www.eunjung.or.kr)에서 소정양식을 작성  
 (사진은 스캔하여 업로드)  
 우 편: 지원서 작성 후 등기우편 접수  
 (2010년 8월 31일 소인까지 유효)  
 ※ 우편접수시 지원서에 반드시 사진(3×4) 2매 부착요망  
 ※ 결과발표: 10월 초(추후공지)